κόκκος

코코스는 '한 알의 밀'을 의미합니다

발행인 강우정
편집주간 이강동
01757 서울 노원구 동일로214길 32
02-950-5401
www.bible.ac.kr

우리 대학의 질적 변화를 주도해 갈 「대학혁신사업단」 이 정식 출범하였다. 31 명의 위원들은 대학 혁신에 전의(戰意)를 불어 넣겠다는 각오로 파이팅을 힘차게 외치고 있다(관련기사 2 면).

2018 OCT
10
VOL. 199

「대학혁신사업단」 정식 출범

"혁신은 개개인의 변화와 회개에서 시작"

김은호 부총장 총괄 , 2 개 분과 31 명 위원 임명

▲ 혁신단의 향후 일정을 안내하고 있는 권경만 기획실장

향후 우리대학의 혁신을 주도해 나갈 「대학혁신사업단」 (이하 , 혁신단) 이 12 일 오후 갈멜관에서 출범했다 . 혁신단은 김은호 부총장 지휘 아래 앞으로 3 년 (2019 년 ~2021 년) 간 진행될 자율개선대학 사업전반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게 된다 .

출범식에 참석한 강우정 총장은 전체 총괄의 김은호 부총장과 2 개 분과를 이끌게 될 , 유정선 (일립교육분과), 조윤경 (전공교육분과 및 교양)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 실무자로 임명된 각 연구 , 실무위원 등 27 명에게도 각각의 위촉장을 전하며 혁신에 전의 (戰意) 를 보여 달라고 당부했다 .

강우정 총장은 축사에서 " 대학 혁신은 구성원 개인의 회개에서 비롯되어야 하며 그 회개의 바탕 위에서 개인의 변화가 우선 되어야 한다 " 고 말했다 . 변화된 구성원은 첫째 , 말씀과 기도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구해야 하며 둘째 , 대학이 처해 있는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위기이며 이를 직시하는 절박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마지막으로 강 총장은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대안 없이 현실을 비판하거나 남 탓하는 것은 공리공론에 불과하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

강 총장은 우리대학이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되어 대학혁신을 꿈꿀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며 , 또 이같은 기회를 허가하고 재정 지원을 하는 국민과 정부에 감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이와함께 앞으로 혁신단이 세우는 혁신 로드맵에 우리공동체가 하나가 되어 이를 강력하게 추진함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한 「한반도복음화」 의 사명을 이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출범식에 앞서 김은호 부총장이 ' 변화 '(롬 12 장 1~2 절) 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였다 . 우리는 혁신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 놓여 있다 . 막중한 사명의 최종점은 곧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세상과 구별해 실행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

미니설교

바라시는 것 중에 원하시는 것

사도행전 16:6~10

이기훈 목사 (교목실)

바울이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났다 . 그 만남은 그의 인생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돌려놓았다 . 그 인생길은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삶의 여정과 같다 .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 이것이 곧 하나님이 바라시는 우리의 인생길이다 .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당신이 바라시는 삶을 바울이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더 원하시는 것이 있으신 듯하다 .

아시아에서 선교 사역을 이어가고자 하는 바울 , 그 삶은 분명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이지만 , 하나님은 성령을 두 차례나 보내시어 바울의 길을 막으셨다 (6 절). 바라시는 것 중에 특별히 원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 본문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원하시는 것은 바울의 사역지이다 . 당신은 아시아가 아닌 유럽에서 복음을 전하길 원하셨다 .

우리도 바울과 같이 복음전도자 양성이라는 걸음을 걷고 있다 . 하나님이 바라시는 길이다 . 그러면 그 다음 ,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중에 원하시는 것 , 그 음성에 귀 기울일 차례이다 .

대학혁신사업단 , 혁신 아이디어 공모

공동체 , 선제적 패러다임으로 위기 돌파를

" 우리 대학의 발전을 위한 혁신 아이디어를 공모 합니다 "

12 일 새롭게 출범한 ' 대학혁신사업단 '(이하 혁신단) 이 혁신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다 . 급변해 가는 대학환경에 적극 대처하고 선제적인 패러다임 확보로 교육의 질적 향상과 복음전도자 양성의 뜻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

20 일부터 접수하고 있는 이번 공모의 주제는 총 4 가지 영역인데 제 1 영역은 성서적 핵심가치 기반강화 , 제 2 영역은 교육학습체제 구축이다 . 제 3 영역은 교육공동체 가치의 구현이며 제 4 영역은 최고 서비스 행정지원체제 구축이다 . 9 월 말 현재 총 37 건이 접수됐는데 상당수가 1, 2, 3 영역 중심의 아이디어이다 . 행정부서와 각 전공학과에서 주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현재까지 제출된 혁신안 중 일부는 다소 파격적 내용으로 대학위기를 정면 돌파하려는 구성원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고 한다 . 성서적 핵심가치의 기반 강화를 추구하는 제 1 영역은 채플 다양화추구 , 전도훈련 개선 , 4 대 신앙훈련 통합 프로그램 개선 등 정체성에 접근해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방안 등이 있다 .

교육학습체제 구축의 제 2 영역에서는 스마트 캠퍼스 구축 , 전과신청자격 유연화 , 전공특화를 위한 수업환경 개선 등 개성 있는 목소리가 눈에 띈다 . 제 3 영역인 교육공동체 가치 구현은 시설 인프라 투자 , 재정 안정화 기반 마련 , 진단 평가의 사후지도 강화안 등이 관심을 끌고 있다 .

제출된 각 혁신안 (마감 10 월 7 일) 은 영역별 분류에 따라 각 분과위원회의 1 차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된다 . 응모는 동문과 지역주민에게도 열려 있는데 현재 2 건의 외부 제안이 접수되었다 . 최종 당선작 10 명에게 각 10 만원의 시상금도 지급될 예정이다 . 교내에서는 사무관리팀이 가장 많은 5 건을 제출하였다 .

혁신단에서는 이번 선정된 공모안과 자체 혁신안 및 시대가 요구하는 교육패러다임 확보로 발전계획안을 완성시켜 ' 자율대학시대 ' 의 야심찬 출발을 기하게 될 것이다 .

수시입시 경쟁률 6.57:1

간호학과 15.09:1 가장 높아

2019 학년도 수시원서 접수가 마감되었다 . 전체 208 명 모집에 1,366 명이 지원해 6.57:1 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 5 명 모집의 간호학과 KBU 인재전형에는 무려 91 명이 지원 , 18.20:1 의 경쟁률로 치열함을 예고했다 .

정원 내 각 학과별 일반경쟁은 간호학과 15.09:1 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 사회복지학과 7.94:1,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5.65:1 로 뒤를 이었다 . 이와 함께 영보학과 5.43:1 이었고 성서학과는 1.76:1 이다 .

신지수 입학관리팀장은 " 공동체의 관심과 애정을 보여준 덕분에 접수가 잘 마무리 되었다 . 전년 (139 명 모집 , 1,648 명 지원 , 11.8:1) 에 비해 경쟁률이 감소했지만 향후 경쟁률 제고를 위한 보완책 마련에 곧바로 착수 하겠다 " 고 말했다 .

이번 입시를 위해 교수 및 교직원이 수도권 내 고교를 방문하며 지원자 유치에 힘을 기울였다 . 입학관리팀은 별도로 입시설명회와 박람회장 및 권역별 입시부스가 열리는 곳을 찾아다니며 홍보에 열정을 쏟았다 .

우리 대학은 과거 입시 유형을 참고로 이번 수시모집에서는 전년도 인원보다 69 명 늘어난 총 208 명을 모집하고 있다 .

총장 초청 졸업예정자 리셉션

말씀 , 기도 , 예배 , 전도의 삶 강조

▲ 간담회를 마친 성서학과 졸업예정자들이 교수들과 함께 하였다.

총장 초청의 졸업예정자 간담회가 17 일 (월)~21 일 (금) 까지 닷새 동안 밀알관 고승태홀에서 진행되었다. 「복음전도자」 의 삶을 다짐하는 졸업예정자들을 축복하고 결단의 시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이다. 첫날 성서학과를 시작으로 영보 , 사복 , 컴소 , 간호학과 순서로 이뤄졌다. 간담회는 케이크 커팅 , 만찬 , 후배들의 특송 , 간증과 총장의 권면 등으로 진행되었다.

강우정 총장은 10 년 전 쯤 , 졸업반 학우 중에 " 예수를 믿지 않는 졸업생이 있으면 어쩌나 하는 공포가 몰려 왔고 졸업 전에 구원의 확신을 확인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간담회를 갖게 되었다 " 고 말했다. 이어 총장은 두 개의 질문을 던졌다. " 여러분 모두 예수를 믿으시나요 ?" 그리고 " 「복음전도자」 로 살겠다고 결단하였나요 ?" 라고 물었다. 학우들은 예수를 믿느냐는 질문에는 분명하게 ' 예 ' 라고 대답하였지만 「복음전도자」 로 결단하였느냐는 질문에는 크게 답하지 않았다.

그는 이어 " 지난 4 년간 학교가 궁극적으로 추구해 온 것은 ' 복음 ' 과 ' 전도 ' 의 두 단어이다. 복음의 핵심 키워드는 ' 십자가의 죽음 ' 과 ' 부활 '(고전 15:3~4) 이고 전도란 살아 있는 영혼으로부터 나오는 ' 그리스도인의 삶 ' 그 자체 " 라고 강조했다.

" 내가 ' 그리스도인의 삶 ' 을 사는지 어떻게 아나 ? 말씀 , 기도 , 전도 , 섬김의 삶을 사는지 보면 안다. 이 네 가지가 영혼의 Vital Sign 이다. 잘못 나간다 싶으면 이것들을 점검하라 " 고 당부하였다.

간담회장에는 졸업을 미리 축하하는 후배들의 멋진 하모니와 율동이 더해지며 축제의 열기를 빛내 주었다. 사복 학우들은 ' 사랑 그 좁은 길 / 겸손 그 좁은 길 / 누가 그 길을 가려나 ' 의 가사를 담아내 뭉클함을 안겼다.

컴소의 박동근 학우가 졸업 후 바라게 될 목표는 "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이어가는 것 " 이라고 간증하였다. 학우들은 ' 우리의 다짐 ' 시간에서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 물질과 명예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성서에 입각해 주의 소명에 따라 전진하는 ' 한 알의 밀 ' 이 되겠다고 결의를 다짐해 주었다.

졸업예정자 247 명 중 203 명이 참석했다.

대외협력팀 , 6 백여만 원 수입

후원화장품 판매로 , 1 천만 원 목표

대외협력팀 (팀장 이은광) 이 후원받은 화장품을 판매해 6 백여만 원의 후원금을 모았다. 제품은 샴푸 , 스킨로션 , 바디로션 등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11 개 품목인데 9 월 한 달간 이뤄낸 성과다. 내부 교직원 및 부설기관이 많이 구매하였으며 바디로션과 일부 샴푸 품목 등은 가성비가 좋아 일찌감치 품절되기도 하였다.

이은광 팀장은 학교 발전을 위해 우수한 제품을 후원해 준 제조사 (제이코스사) 에 고마운 뜻을 표했다. 전영호 직원도 부설기관 내 동료 직원들이 기꺼이 참여해 주었으며 입소문과 함께 반복구매로 이어지는 등 호응이 예상 밖으로 좋았다고 기쁨을 나타냈다.

대외협력팀은 현재 확보된 물량을 크리스천 데이 행사 때 내놓을 예정이며 외부 교회 및 공공기관과도 사업협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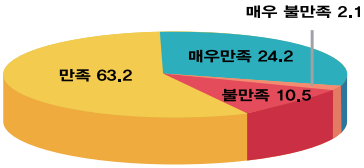
품목은 남녀 공용 샴푸 , 여성 스킨 로션 , 에센스 , 유아 샴푸 등이다. 800ml 용량이며 최소 5,000~10,000 원에 판매된다.

관련 문의 : 대외협력팀 950-55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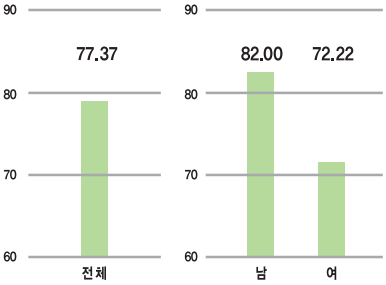
일립생활관 학우들 87.4% 만족

새벽기도 , 저녁점호에는 비 호감 나타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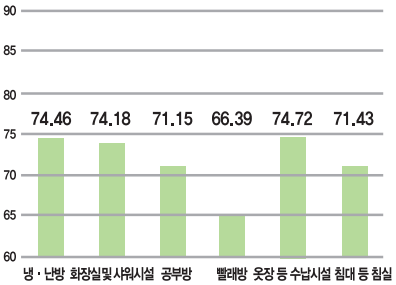
평가감사실이 2018 년 1 학기 일립생활관 입주생들의 생활만족도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 이 조사에는 입주생 144 명 중 95 명의 학우 (65.97%) 가 참여하였다 . 조사 항목은 전반적인 만족도 , 생활지도 등 6 개영역 36 개 문항이었다 .



[표 1] 생활관의 ' 전반적인 만족도 '



[표 2] 생활관의 ' 전반적인 만족도 '



[표 3] 생활관 시설영역의 세부항목별 만족도

1. 생활관의 ' 전반적인 만족도 '

2018 년 1 학기 입주생들의 87.4% 가 생활관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 (63.2%) 혹은 매우 만족 (24.2%) 이라는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표 1] 이를 백분위로 환산한 전반적인 만족도 점수는 77.3 점으로 나타났다 .[표 2] 백분위 점수란 5 점 척도로 응답한 결과를 백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다 .

' 전반적인 만족도 ' 는 전년도 76.39 점과 비교해 0.98 점 높아졌다 . 그리고 남학우는 82.00 점 , 여학우는 72.22 점으로 여 학우에 비해 남학우의 만족도가 약 10 점 높게 드러났다 .

2. 생활지도에 대한 만족도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관장과의 상담 (신입주생) 이 80.19 점으로 가장 높았고 오리엔테이션 77.63 점 , 방장회의 77.27 점과 대청소 72.63 점 순으로 조사됐다 . 가장 낮은 항목은 저녁점호로 66.22 점이다 . 저녁점호가 유일하게 60 점대에 머물러 학우들의 비호감 항목으로 나타났다 .

3. 편의복지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편의복지서비스에서는 정수기 사용이 가장 높은 82.45 점을 보였다 . 택배수령 81.99, 우편물수령 78.72 점과 전자레인지 78.05 점 , 뒤이어 다리미 78.05 로 응답했다 . 반면 청소기 , 공용식기 , 인터넷사용 서비스 등은 60 점대로 만족도가 낮았다 . 건조대 부족이 아쉽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

4. 생활관 시설 및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가장 높은 응답으로는 옷장 등 수납시설 (74.72 점) 을 꼽았다 . 화장실 및 샤워가 74.18 이었고 침대 등 침실 71.43 점과 공부방 71.15 점 순으로 응답해 줬다 . 시설분야에서는 빨래방의 경우 66.39 점으로 만족도가 제일 낮았다 . 화장실 및 샤워는 남학우 78.19 점 , 여학우 70.00 점으로 남 · 여 학우 간 만족도에서 차이를 보였으며 냉난방 시설에서도 남학우 81.91 점 , 여학우는 66.67 점으로 남녀 간 호감도가 크게 차이가 났다 .[표 3]

생활관의 상시 프로그램은 새벽기도회 , 남학우들의 수요운동 , 여학우들의 화요예배 등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 새벽예배에 대한 만족도가 68.68 점으로 제일 낮았다 . 이 항목에서 남학우는 70.21 점 , 여학우는 67.05 점을 주었다 . 새벽예배에 대해 2017 년 2 학기에 73.86 점이었는데 이번 학기는 68.88 점으로 5.18 점이 떨어졌다 . 반면 남학우 대상의 수요운동은 79.82 점으로 가장 높았고 여학우의 화요예배는 73.79 점이었다 .

생활관에 대한 입주생들의 ' 전반적인 만족도 ' 는 전년도에 비해 상승하였으나 서술형 의견에서는 전년도와 동일한 의견이 중복돼 나타났다 .

학우들의 문제점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이에 대해 개선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 만족도 조사에 따른 개선 계획이 있다면 실제적으로 구현되고 있는지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

10 월 25 일 , 크리스천데이

총학주관 , '하나님이 너에게' 주제

▲ 우리가 만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학우들의 바람이 로고스홀 로비에 걸려있다. (지난 해 크리스천데이 자료)

종교개혁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게 할 크리스천 데이 기념행사가 오는 10 월 25 일 하나총학 주관으로 진행된다 . 하나총학은 이번 크리스천데이의 주제가 " 하나님이 너에게 " 로 정하였고 ' 편지 ' 가 부제라고 밝혔다 .

전체 행사의 방향도 주제에 맞는 컨셉을 구상하고 다양한 플리 마켓과 전도반 콘테스트 등을 활발히 펼쳐나갈 계획이다 . 교내 요소마다 기독교적 색채와 문화적 감성을 충전시켜 줄 전시회 , 동아리별 홍보 이벤트와 볼거리도 준비 중이다 . 행사를 빛나게 할 외부 초청 게스트 공연은 홍보영상 공개일 전까지 노출이 곤란하다는 답변으로 관심을 증폭 시키고 있다 . 진예은 총학회장은 이번 크리스천 데이가 종교개혁의 본질을 성찰하고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한 내면의 응답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하였다 .

윤곽이 드러난 당일 스케줄은 11 시 30 분 ~12 시 30 분까지 예배가 진행된다 . 오후 1 시 30 분부터 전도반 콘테스트와 게스트 공연이 이어지며 4 시 30 분에 전체 일정을 마칠 계획이다 .

2 학기 영어졸업고사 142 명 합격 (86%)

4 학년 응시자 22 명 , 전원 합격

2018 학년도 2 학기 영어졸업고사가 29 일 로고스홀에서 치러졌다 . 142 명이 신청 , 그중 138 명 (97%) 이 응시하였으며 119 명 (86%) 이 합격했다 . 이는 전년도 86 명 합격 (72%) 에 비해 14% 증가한 결과이다 .

재학 중 마지막 기회가 되는 4 학년의 경우 , 응시자 22 명 전원이 100% 합격을 이뤄내며 부담감을 덜었다 . 4 학년 미패스자는 18 명이다 . 이들은 외부 토익으로 졸업인증을 받아야 한다 . 합격선은 550 점이다 .

전공교육부는 졸업인증 (성경 , 컴퓨터 , 영어) 시험은 가급적 3 학년 때 끝낼 것을 강력히 권고하였다 . 졸업에 대한 부담을 덜어 내고 4 학년 때는 취업 및 진학 등 졸업 후 진로에 집중하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

현역 복무기간 90 일 단축 확정

2020 년 6 월 입대자는 18 개월

군병역 의무대상자의 복무기간 단축이 최종 확정됐다 . 단축안은 이번 10 월 전역자부터 적용되며 2 주 단위로 하루씩 줄어드는 방식이다 . 육군 · 해병대 · 의무경찰 · 상근예비역은 기존 21 개월에서 18 개월로 줄어든다 . 해군 · 의무해양경찰 · 의무소방은 23 개월에서 20 개월 . 공군은 24 개월에서 22 개월이며 사회복무요원도 24 개월에서 21 개월로 각각 단축된다는 게 기본골자다 .

정부는 지난 4 일자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 단축안 ' 을 심의 의결하였다 . 따라서 2017 년 1 월 3 일 입대자부터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 기존 복무안을 적용하면 10 월 2 일 전역해야 했으나 이번 통과로 하루가 줄어든 10 월 1 일 제대한다 .

최종적으로 2020 년 6 월 15 일 육군 현역입대예정자라면 지금보다 90 일 줄어든 2021 년 12 월 14 일 제대하게 된다 . 미래 병역의무를 앞두고 있는 학우들이라면 단축안을 토대로 자신의 입영시점과 조율해 볼 필요가 있다 . 이번 군 복무 기간 단축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밝힌 공약의 하나이다 .

단축 일수와 전역일 문의는 병무청 홈페이지 (www.mma.go.kr) 에서 살펴볼 수 있다 .

신입직원 기본교육

학교 정체성과 업무 역량 공유

▲ 신입직원에게 행정문서작성법 등을 설명하는 양희정 사무관리팀장

신입직원 기본교육이 17 일 오전 일립관 601 호에서 진행되었다. 신입직원에게 건학 목적을 확립시키고 업무역량과 자질을 높이는 자리로 입사 1 년차인 7 명의 직원이 참여했다.

권경만 기획실장이 설립자의 교육목적과 학교 정체성 확립, 비전을 전했다. 참석자들은 우리대학 건학이념인「한반도 복음화」를 위한 학교설립 목적을 숙고했으며 설립자의 저서 ' 나의증언 ' 을 읽고 토론하는 시간을 10 월경 다시 갖기로 하였다.

양희정 사무관리팀장은 그룹웨어와 전자결재시스템의 사용법을 안내했다. 이밖에 업무분장, 각종 기안문 등의 문서작성과 인사 규정, 근무 규정 매뉴얼 설명과 질문이 함께 이루어졌다.

김예지 (기초교육원 조교) 직원은 " 학교 정체성을 더 깊게 고민하는 시간이 됐다. 문서 작성과정의 여러 의문점이 교육으로 많이 해소되었다 " 고 말했다. 사무관리팀에서는 신입직원의 수에 따라 신입직원 기본교육을 년 1, 2 회 진행해 오고 있다.

교육에 참석한 명단은 다음과 같다.

▲오예솔 (성서학과 조교)
▲김원정 ▲고아라 (이상 컴소 실습조교)
▲이정은 ▲김성경 (이상 간호 실습조교)
▲안희정 (행정조교)
▲김예지 (기초교육원 조교)

이한영 교수 가을 음악회 , 바흐 (Bach) 곡

여호와의 감사와 위대함을 선율에 담아내

▲ 연주회를 마친 이한영 교수를 축하해 주며 함께 한 교직원들

소프라노 이한영 (기초교육원) 교수가 18 일 오후 7 시 30 분 노원문화예술회관에서 독창회를 가졌다. 이 교수는 독일 후기 바로크 음악의 거장이며 교회음악 아버지로 불리는 바흐 (Johan Sebastian Bach) 의 곡을 준비하였다.

첫 곡은 칸타타 BWV 69 번 'Meine Seele, auf erzahle' 이다.(BWV, Bach–Werke–Verzeichnis 약자로 바흐의 작품번호를 칭함). 주가 행하심을 찬양하고 이름을 높이는 거룩하고 잔잔한 하모니가 장내에 퍼졌다. 곧이어 'Zum reinen wasser ermich weist' 곡에서 빼어난 절제미의 오보에가 합류했다. 음을 정제시킨 오보에 사이로 소프라노의 달콤한 음색이 주의 신령함을 손에 닿을 듯 그려낸다. 'Jesus Christus, Gottes Soha' 에 이르자 사망을 물리친 전능자의 힘찬 모습이 공간 전체를 빠르게 장악해갔다. 결혼 칸타타 BWV 4 번 'Weichet nur, betrubte Schatten' 에서 봄날의 꽃과 향기를 곳곳에 피워주었고 NO. 3, 7 번에서는 완숙한 음색을 드러내며 사랑과 기쁨, 웃음과 감사를 형상화 시켰다.

후반부로 접어들자 칸타타 51 번인 'Jauchzet! Gott in allen Landen', 박자와 화음들이 한 바탕 거센 격랑을 예고한다. 초창기 주의 신실함을 표현하는 멜리즈마의 가파른 기교를 이 교수의 치밀하고 긴박한 호흡은 빈틈없이 되살려낸다. 바흐의 평생은 물질과 명예를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 영광만을 위한 음악이 그의 전부였다고 전해 온다. 'Erfullet, ihr himmlisehen, gottlichen Flammen' 에서는 하늘의 신령함을 간절히 호소했고 이를 화답한 박수갈채가 더욱 붉어졌다. 'Jesus bleibet meine Freude', 귀에 익숙한 곡을 전하며 주가 우리 기쁨의 원천임을 간절히 표현해 주었다.

앵콜 찬양곡 '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 가 아쉬움을 남게 하였는데, 이날 연주회의 진정한 주인공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었음을 확인시킨 자리가 되었다.

제 9 회 도서관 서평대회

『그리스도의 십자가』 등 6 권

도서관이 학우들을 대상으로 '제 9 회 도서관 서평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서평 대상 도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등 6 권, 그 중 1 권을 읽고 서평을 작성해 제출하는데 현재 심사중이다.

이번 서평대회에 선정된 도서 목록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조 스토트 / 『내가 왜 믿어야 하죠?』 김재욱 / 『데이트와 사랑의 미학』 죠이스 허키트 / 『책을 지키려는 고양이』 나쓰카와 소스케 / 『그릿』 앤젤라 더크워스 / 『말의 품격』 이기주 이다.

서평심사는 학술적 글쓰기 교수 중심으로 구성 되었으며 서평 형식과 내용 및 독창성이 주요 심사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선정작은 10 월 12 일 발표되며 제출자에게는 학술적 글쓰기 과목의 리포트 점수가 가산된다. 대상과 최우수 및 우수상을 선정하며 대상에게는 20 만 마일리지가 부상으로 수여된다.

도서관 '도서 나눔 서가' 운동 펼쳐

일부 도서 판매, 권당 1,000 원 부터

▲ 도서관 3 층에 자리하고 있는 나눔 서가

도서관이 '도서 나눔 서가'를 펼쳐 관심을 끌고 있다. 도서관내 소장본 중 복본과 장서사용이 곤란한 일부 도서를 3 층 서가에 비치해 놓고 책 상태에 따라 권당 1,000 원 ~ 5,000 원에 판매중이다.

도서관은 지난 2010 년부터 동문과 교수 및 교직원 그리고 외부인 대상으로 도서기증운동을 진행하였다. 결과 약 80,000 권 분량의 도서가 기증되었고 선별을 거쳐 서가(書架) 내 재배치로 장서보유를 확장시켜 왔다. 그 과정에서 일부는 나눔행사를 가져 교내 학우와 대학원생에게 무료 배부로 호응을 일으켰다.

최지은 팀장은 이번 '도서 나눔 서가'는 그 연장선에서 서가에 상시 배치화로 편의를 증대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진열도서는 계속 교체된다며 판매금액은 기말고사 야식서비스로 사용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정보의 바다를 서핑하다

'제 5 회 전자정보박람회' 7 개 업체 참여

▲ 박람회에 참석한 학우들이 업체 관계자로부터 정보시연을 살펴보고 있다

도서관이 주관하는 '제 5 회 전자정보박람회'가 12 일 밀알관 고승태홀에서 열렸다. 나날이 진보를 거듭하며 일상 곁으로 다가오는 각종 전자정보자료(웹 DB, 전자책, 웹서비스 등)가 시연돼 눈길을 사로잡았다.

현장을 방문한 학우들은 전자정보 진화현장이 해마다 바뀌고 있다는 걸 실감한다고 털어놓았다. 간단한 연관검색어 만으로 원하는 근접정보를 콕 집어내는 능력에 놀라움을 나타내고 작은 도서관 한 곳이 손안에까지 이를 날이 멀지 않은 것 같다고 말해다.

학우들은 이날 스탬프투어와 인스타그램 및 해시태그 이벤트를 함께 펼쳤다. 경품추첨으로 35 명에게 블루투스 에어팟, 상품권 등 다양한 상품이 전달돼 덩달아 기쁨을 주었다.

이번 박람회에는 Proquest 등 7 업체(Proquest, Dbpia, KISS, e-article, 다락원, 서울정보시스템, 북큐브 전자책)가 자리해 전자정보분야의 진화된 모습을 생생히 보여줬다. 200 여명의 학우가 현장을 찾아 자료와 관련된 검색과 각종 상담 등을 활발히 가졌다.

총장의 편지
강우정 총장

기도쪽지

매일채플 시간에 로고스홀 입구에서 학우들은 기도쪽지를 받아 듭니다. 가로 세로 10cm 의 작은 쪽지이지만 그 내용은 무겁기 짝이 없습니다. 첫 줄 부터 두 학우의 기도제목을 보게 됩니다. 그 기도제목을 가지고 우리 모두는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들의 기도제목 중 제일 안쓰러운 기도제목은 "부모님이(혹은 가족 중 누군가가)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보며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이 학우가 얼마나 힘든 가족생활을 하고 있을까 하는 연민의 마음과 믿지 않는 부모들은 얼마나 곤혹스러울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요즈음 불신 학우 또는 불신 가정의 학우 수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런 학우들을 생각하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시작한 불신가족 전도를 위한 집회가 9 년째입니다. 올해도 오는 10 월 30 일 집회를 갖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우리 자신이 기도로 무장하는 준비기도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4 일 매일채플 후 준비기도회가 찬양연습실에서 있었습니다. 40 여명의 학우들과 교수, 교직원들이 모였는데 참 뜨거웠습니다. 이번에는 큰 기적이 일어 날 것 같은 선한 기대감이 몰려 왔습니다.

한반도를 복음화 해야 하는 우리인데 우리 대학의 복음화에도 무력하기 짝이 없는 나 자신의 모습에 자괴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용기를 잃을 때마다 나에게 새 힘을 주시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고전 1:20-21)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하기 전에 우리 대학을 복음화 해야 합니다. 이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나아갑시다. 그래서 앞으로는 학우들의 기도제목에서 가족의 구원을 바라는 기도 제목이 사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직원 컬럼
박성범 센터장 (취창업지원센터)

성실하고 꾸준한 안타왕 어떤가요?

연일 '고용참사'라 불리는 현 시대에 취업이나 진로 문제로 고민하는 청년들이 많다. 얼마 전 한 사람이 기억난다.

그는 파견계약직 신분이었다가 대통령 공약에 의해 공기업 정규직에 전환되었다. 작년 7 월 전 입사자까지 해당되는데 연초 계약직 입사여서 가능하였다. 분명 운도 따랐지만, 경력을 쌓고자 일을 시작한 것이 탁월한 선택이었다.

청년 취업이 쉽지 않은 요즘이다. 불안정의 시대이지만 그렇다고 공기업, 공무원 등 오직 안정만을 목표로 삼는 취업준비생을 보면 가슴이 아프다. 1 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다면 나중에 관련분야 이직도 가능하다. 잠시 돌아가도 좋으련만 조건 좋은 일자리에 시선이 고정돼 있다.

야구에도 홈런 한 방을 날리는 건 정말 멋지다. 하지만 홈런만 생각하다 힘이 들어가는 바람에 삼진 당하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배트를 짧게 잡고서 힘을 빼고 맞춘다는 전략으로 가볍게 툭 친 스윙이 안타로 이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다. 한 방의 홈런만 노리다가 기회와 시간까지 놓치고 경력도 없는 청춘이 될 까봐 안타깝다.

지금은 위기의 시대가 분명하나 반대로 기회도 상존한다. 실무현장에 과감히 진출해서 직접 부딪치며 타석에 서는 건 어떤가. 처음엔 헛스윙에 삼진도 많이 당한다. 그러나 횟수만큼 공이 눈에 들어와 안타로 이어지고 마침내 재능 있는 타자로 우뚝 자리매김할 것이다.

이 순간에도 현장에서 땀 흘리며 성실과 끈기로 자신의 인생 점수를 쌓고 있는 KBU 청춘 모두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교수 컬럼
강규성 교수 (성서학과)

그릇 들고 찾아오신 하나님

2012 년 8 월 1 일에 있었던 일이다. 우리 가족은 연구년을 위해 미국으로 떠났다. 우리는 14 시간 비행 후 시카고에 도착했다. 이제 왔구나 했더니 공항 입국 수속이 늦어지는 바람에 그랜드래피즈로 가는 비행기를 그만 놓치게 되었다. 대기 상태로 공항에서 밤새며 보낼 수 있다는 불안한 생각으로 기다리다 밤 9 시 15 분 출발, 그랜드래피즈에 도착해서 호텔로 들어오니 밤 12 시였다.

다음날 머물게 될 집을 계약하고 집에 가보니 텅 빈 공간. 여기에 무엇으로 어떻게 채워 넣어야 할지? 금방 여러 생각들로 가득찼다. 다행히도 칼빈에서 박사 과정 중인 김은득 목사님 도움으로 필요한 것을 구입하게 됐다. 다시 집에 들어와 보니 밤 8 시, 모두 피곤해서 금방 잠이 들었다.

아침에 아들 승현이가 어제 밤에 누군가 문을 두드리다 갔다고 했다. 순간 아니 혹시 ... 하는 불안감이 지나갔다. 그리고 무심코 문을 열었는데 정말 꼭 필요한 사발, 접시, 잔, 세제 등등이 놓여 있었다. 아니 그날 밤 문을 두드린 자는 도둑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릇들을 들고 방문하신 것이었다. 나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를 아신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사자는 과연 누구일까? 알고 보니 그는 내가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백석대 류호준 교수님이었다. 그는 지금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셨다. 그래서 밤에 그릇을 들고 찾아오신 것이다. 그릇을 들고 오신 하나님!

나는 이렇게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 과연 나는 다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 관찰하고 채운 적이 얼마나 있는가?

나는 무엇을 들고 누구를 찾아가야 할까?

외래교수 컬럼
박선화 교수 (아동간호학)

감사의 말

누에는 자신의 입에서 나온 실로 집을 짓고 살 듯, 인간도 자신의 입에서 나온 말로 인생을 만들어 간다. 불평의 말이든 감사의 말이든 언젠가는 메아리가 되어 나의 삶을 향해 되돌아온다. 따라서 말은 씨가 되고, 인격이 되며 그 사람의 삶이되기도 한다. 한마디의 말이 삶에 희망을 주고 인생 목적을 변화시킨다. 반대로 절망이나, 인생 포기의 심각함을 낳기도 한다.

타인을 가장 기쁘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말은 '감사합니다.' 이다. 물론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언어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감사에 인색한 경우가 많다. 형식적인 감사는 있지만 진정한 감사를 찾기란 쉽지 않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은 자주 사용하지만 과연 그렇게 감사를 외치는 사람이 정작 부모나 자녀, 형제자매, 배우자에게는 얼마나 자주 감사를 표할까? 곰곰이 생각해 보곤 한다.

성경에서도 감사의 말을 권하고 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엡 5:4)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대로 그 사람의 인생이 되도록 하시는 분이시다.

길을 가다가 상스러운 말을 쉽게 내뱉는 걸 들을 때가 있다. 굉장히 당혹스럽다. 같은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도 장미꽃처럼 향기가 나는가 하면, 어떤 말은 가시처럼 상대방에게 상처를 준다. 타인의 말에는 쉽게 화를 내고 상처를 받으면서도, 정작 자신의 말에는 신경 쓰지 않는다. 내가 내뱉은 말로 인해 상대방이 깊은 상처를 입고 아파하는데도 말이다. 남을 아프게 한 가시와 같은 말이 언젠가는 자신에게 상처로 돌아오게 마련이다.

'감사합니다.' 진정을 담은 따뜻한 말 한마디는 상대방의 닫힌 마음을 열고 메마른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하는 윤활유의 역할을 한다. 입술에 감사의 언어가 삶을 지배토록 바꿔보자. 하나님이 당신의 감사를 듣고 계신다. 하나님 귀에 들리시는 대로 감사가 넘치는 인생으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최정권 목사 컬럼

성서대학교회 담임

그리움

아들이 사진을 한 장 보내 왔습니다. 아빠가 미국에서 살려면 풋볼을 알아야 한다고 그 풋볼의 규칙을 열심히 침을 튀겨 가면서 가르쳐 주었건만, 워낙에 운동과 담을 쌓고 산 아버지를 두었기에 아들의 그 열심은 실패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실패한 풋볼 경기장에서 찍은 사진인데 눈에 띄는 건 아들 옆에 있는 한 남자였습니다. 인파로 가득 찬 경기장을 배경으로 인자한 모습으로 서있는 제 나이 또래의 남자입니다. 대충 어깨 너머 들은 정보로 그 회사 부회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 그들은 아버지와 아들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사람이 서 있는 듯한... 가끔 내가 아들 키워서 미국에 준 게 아닌가하는 느낌이 있는데, 꼭 그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들은 만나면 딱 10분 좋다는데 그래도 보고 있으면 듬직한 아들이 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버지니아를 떠날 때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빠 내 인생은 뭐야? 난 왜 아빠가 옮기는 데로 가야 하는 거야?" 너무 당연한 걸 물어서 당황했습니다. "그럼 아빠 따라 가야지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당시의 전 그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전임전도사로 부임해서 초등학교 2 학년까지 다니던 강북의 교회를 떠나 담임이 되서 강남 올 때, 아이는 행복한 시절을 두고 저를 따라 왔습니다. 강남에서 초등학교를 마치고 이제 막 중학생 된 아들의 행복을 다시 흔들고 비행기를 탔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먼 바다를 건너서 낯선 땅에 온 겁니다. 아들의 의지와 관계없고 한 번도 그 의견을 물어본 일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들어간 미국 중학교에서 아들은 다시 적응력을 발휘해야 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게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그 아들의 노력을 다시 흔들어야 했습니다. 그 이후 이제 적응해서 나름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아이에게 다시 옮겨야 한다는 걸 말했습니다. 그때 아들이 보인 반응이 "아빠 내 인생은 뭐야?" 였습니다.

그 아들을 데리고 다시 필라로 왔습니다. 아들이 대학을 정할 때 자신이 억지로 떠난 땅에 다시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아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준비 없는 아비가 되어 아들의 마음을 많이 헤아리지 못했다는 자책이 들어 아들에게 사과 했습니다. 아들이 방황을 끝내고 버지니아에서 제게 전화하던 날 많이 울었습니다.

"아빠 기다려줘서 고마워"

아마 제 아버지도 저를 그렇게 그리워했을 겁니다. 병상에 누우셔서 자신이 동의하지 않은 길을 간 아들의 기도를 기다리셨던 아버지의 아들이, 이제 다시 그 아들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임경미의 토닥토닥 시 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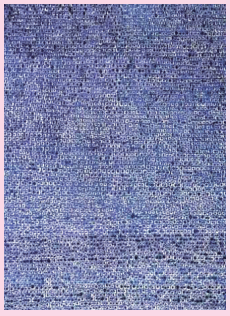
저녁에

김광섭

저렇게 많은 중에서
별 하나가 나를 내려다본다.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그 별 하나를 쳐다본다.

밤이 깊을수록
별은 밝음 속에 사라지고
나는 어둠 속에 사라진다.

이렇게 정다운
너 하나 나 하나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16-IV(1970) 김환기 작

1969 년 12 월, 뉴욕에 있던 김환기는 오랜 친구 김광섭으로부터 연하장과 소포를 받는다. 소포에는 투병 중 발표한 〈저녁에〉가 있었다. 시를 읽은 김환기는 화실에서 스케치북과 색연필을 가지고 와 종이 한복판에 푸르른 색을 칠하고 그 위에 시를 쓰고 위아래에 점을 그렸다. 데생 이후 작품 주제를 확정한 그는 2m 가 넘는 속틀을 직접 짜고, 무명 (cotton) 캔버스를 맨 후 밤하늘을 닮은? 짙은 청색물감을 전면에 칠한다.

'저녁이면 검푸른 색이 되는 고향 바다, 어스름이 내리면 검푸른 색이 되는 뉴욕의 밤하늘, 그 위에 친구들도 그리고 그리움도 그리고 슬픔도 그리고 기쁨도 그렸다. 푸른 바탕에 흰 네모 점을 그리고 그 안에 그리운 얼굴들을 생각하며 검푸른 점을 찍었다. 그리하여 점 하나는 사람이며 섬이고 총총한 밤하늘의 별이었다.' 두 달 만에 완성한 작품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김환기는 이 작품으로 제 1 회 한국미술대상을 수상하였다. (참조 : 이충렬,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유리창, 2013.)

영보 엠티 , 신명난 흥과 끼의 잔치로

선후배간 나눔의 자리 , 영보의 존재감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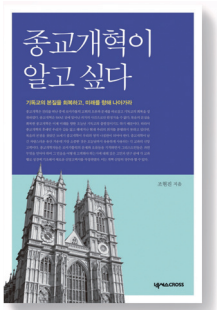
▲ 엠티를 마친 후 우정과 단합을 과시하고 있는 3 학년 영보 학우들

영유아보육학과 엠티가 7 일 오후 5 시 일립관 101 호에서 개최되었다. 영보 구성원간 비전의 공유와 친목도모를 높여가는 자리였고 식사와 장기자랑, 전체 코스게임과 교제로 이어졌다. 8 명씩 6 팀이 선보인 장기자랑이 포문을 열었다. 표정과 율동이 보이스와 믹싱되고 틈새 사이로 파고든 익살스런 몸짓에 장내는 폭소로 가득찼다. 신명난 끼와 흥겨움이 영보의 존재감을 실감케 했다. 주제어 맞추기, 캐치마인드, 영화대사, 브랜드 게임 등은 순발력과 팀웍을 요구했다. 각종 소품을 이용한 코스게임도 시선을 끌었고 손가락게임, 만보만보 게임 등이 신선한 감각을 찾게 하였다. 팀별로 자리한 나눔의 시간에서는 학과 비전과 업계의 흐름 등 정보교류 등으로 선후배 관계를 밀착시켜준 자리가 되었다.

참석한 학우들은 영보의 존재감과 비전을 확연히 보여준 엠티였다고 입을 모았다. 잘 먹고 화끈하게 놀았다. 영보가 살아있음을 서로가 확인하는 시간이라고 엄지손을 치켰다.

김형미 학과장은 영보인만의 끼와 흥을 통해 건전하고 성스러운 보육업무를 더욱 견인해가는 출발점 되기를 염원하였다.

『종교개혁이 알고 싶다』 출간



1517 년 마틴 루터의 95 개조 반박문에서 발화된 종교개혁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이를 쉽고 평이한 관점으로 핵심에 접안해 탐색하며 미래를 조망케 한 조현진 (성서학과) 교수의 『종교개혁이 알고 싶다』 가 출간되었다.

책의 전체는 하나님의 관점과 역사하심을 배경으로 종교개혁 전반을 담았다. 95 개조 반박문 발표 당시 각 교파들의 긴박했던 상황전개와 이에 반응하는 대중의 시선 등도 살펴보게 한다.

역사의 소용돌이에 머물며 하나님과의 본질회복을 굳세게 외친 선구자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현재의 나를 되돌아보게 이끈다. 한국 기독교계에 혼탁함이 깊어져가는 이 시대에 오직 성경 , 오직 믿음 , 오직 예수를 다시 염원하고픈 저자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다.

『종교개혁이 알고 싶다』 조현진 저 / 넥서스 CROSS / 215 쪽 / 8,500 원

건강상식 _ KBU 보건실

두통에 대해 아시나요?

가장 흔한 두통인 긴장성 두통은 마치 꽉 조이는 피가 머리에 둘러진 것처럼 조이는 듯한 느낌을 풍긴다. 편두통은 한쪽 머리에 맥박이 뛰듯 욱신욱신하거나 지끈지끈한 통증이 지속되며, 군발성 두통은 한쪽 눈과 그 주변을 꿰뚫는 듯한 통증이 있어 두통 중에 통증이 가장 심한 편이다.

◎ 좋은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

철분이 풍부한 굴, 계란노른자, 미역, 다시마, 바지락, 시금치, 동물의 간 등과 고등어와 연어 같은 등 푸른 생선과 다양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면 좋다.

피해야 할 음식은 1) 카페인 : 초콜렛, 커피, 녹차, 콜라 등 2) 글루탐산염(MSG) : 인스턴트 식품, 육가공품 3) 아민성분 : 치즈, 양파, 적포도주, 호두, 바나나, 콩, 파인애플 등은 조심해야 한다.

◎ 두통 관리법

1. 통증 부위에 냉찜질 한다.
2. 자극적인 빛, 소리, 냄새 등을 피한다.
3. 머리나 목을 편하게 받쳐주는 베개를 사용한다.
4. 스트레스 받는 상황을 피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한다.
5.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두통 유발 음식을 피한다.
6. 두통있는 쪽 관자놀이 부근이나 두피, 목에서 눌렀을 때 통증있는 부분을 손가락으로 꾹꾹 눌러준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학어린이집

▲ 엄마 아빠와 함께 자가 발전 후레쉬로 상자 속의 글자를 찾아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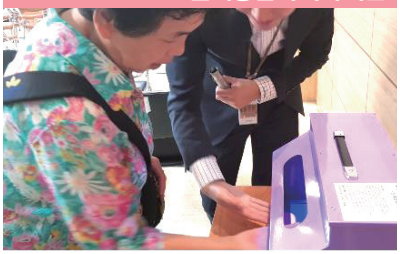
지구 마을을 살리기 위한 '세계시민의 날'

대학어린이집에서는 지난 15 일 가족의 날 프로그램 하나로 ' 세계시민의 날 ' 행사를 가졌다. 아이들과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할 세계 시민 교육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점점 악화되는 지구마을을 살리기 위해 일상에서 참여가 가능한 활동들 위주였고 학부모 가족도 참여했다.

이 날 부모와 유아들은 자연물로 글자꾸미기, 소중한 물 정수체험으로 물의 유익함에 대해 인식을 높여갔다. 쓰레기 사격 왕, 환경 퀴즈돌림판, 탄소 줄이는 방법도 눈길을 끌었으며 자가발전 후레쉬 켜기에서는 호응이 높았다. 이밖에 환경 보존 교육과 다양한 사례 등이 함께 전개되었다.

유아들은 앞으로 일회용 쓰레기를 줄이는 등 지구 환경이 깨끗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집에서부터 실천해 나가겠다고 다짐 하였다. **[기쁨반 정난경 교사]**

월계종합사회복지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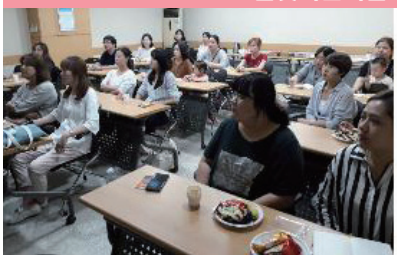
▲ 자신의 손을 손위생검사기에 넣고 세균여부를 확인중인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자 위생교육

월계종합사회복지관은 가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지난 5 일 자원봉사자 대상의 위생교육을 가졌다. 9 월 ~10 월은 아침저녁으로 쌀쌀하지만 낮에는 불볕더위가 이어져 음식물에 세균이 쉽게 발생하는 계절이다. 교육은 아워홈 지원으로 위생 컨설턴트 이승윤 강사가 진행하였다.

일상생활 속 식중독 위험사례와 식품관리방법 및 개인위생을 통한 실천예방방법 등이 안내되었다. 특히 손 씻기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손 씻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손위생검사기로 자신의 손에 남아있는 세균을 눈으로 확인하고 심각성을 깨달았다. 이와 함께 손 씻기 6 단계 방법도 실습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교육으로 자원봉사자들이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강하게 활동하기를 기대해 본다. **[지역사회조직팀 / 문유나 사회복지사]**

꿈빛어린이집



▲ 자녀와 부모를 이어줄 독서법을 경청하고 있는 학부모들.

아이와 부모를 이어주는 독서법

지난 13 일 꿈빛어린이집은 학부모 대상으로 아이와 부모를 이어줄 독서법에 대해 강연회를 실시하였다.

강연은 독서가 우리 아이들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사례가 소개 되었다. 가정에서 학부모들이 자녀 독서지도 효과를 돕는 방법 알아보기 등으로 이루어졌다. 참여 학부모는 각자의 가정에서 아이에게 독서를 지도하며 겪는 어려움과 대응 방법 등을 질문하며 관심을 높여갔다. 책과 관련해 아이들과 할 수 있는 다양한 놀이 방법 등 평소 궁금한 부분에 대해 조언을 듣고 만족해 했다. 어린이집은 영유아들이 독서를 통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초롱반 김혜진 교사]**

성서대학교회

▲ CTS 소년소녀 합창단이 창립 30 주년 축하 찬양을 합창하고 있다.

창립 30주년 감사

무더위 속의 긴 방학을 마무리하고 장년부는 사랑방 개강연합예배를 9 월 7 일 드렸다. 개강예배는 찬양과 기도, 말씀. 그리고 풍성한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은혜 넘친 감사의 한 마당이었다.

9 월 9 일 (주일) 은 창립 30 주년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모든 성도는 창립 30 주년의 감사와 기쁨만이 아니라 앞으로 달려갈 30 년의 비전을 품고 한 마음 한 뜻으로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짐하였다. 이와 함께 주님의 예배자로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 영적 회복을 통해 부흥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였다.

오후에는 우리 청소년들이 포함된 CTS 소년소녀 합창단이 창립 30 주년 미니콘서트로 주를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 욱 목사]**

상계백병원어린이집

▲ 한복을 차려 입은 유아들이 엄마 선생님과 송편을 만들고 있다.

민속의 날 행사

상계백병원어린이집 영유아들은 한가위를 앞두고 21 일 민속놀이 행사를 가졌다. 학부모가 참여하는 열린 어린이집의 날과 겸해 진행되었다. 유아들은 엄마선생님들과 함께 송편만들기, 노리개 만들기 등에 매우 흥미를 나타냈다. 민속악기 체험과 전통놀이(대형윷놀이, 투호던지기, 활쏘기, 굴렁쇠 굴리기, 딱지치기, 제기차기, 공기놀이)로 명절 고유의 문화를 체험해보는 시간이 되었다. 이와 함께 상계백병원 총무부를 방문, 직접 만든 송편을 직원에게 전달하면서 나눔의 즐거움과 감사를 실천해보는 기회도 가졌다.

영유아들은 우리나라 명절놀이의 즐거움을 직접 경험한 것에 만족감을 나타냈다. 학부모들도 자녀의 흥겨운 모습에서 교사들의 수고 덕분이라며 노고를 위로하였다.

[푸른반 이예은 교사]

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

▲ 개관 10 주년 기념행사를 마치고 내빈들이 함께 하였다.

개관 10주년 기념행사

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가 개관 10 주년을 맞아 기념하는 행사를 지난 5 일 가졌다. 기념행사에는 국 · 공립과 상계 4 동어린이집 유아들의 '어린이 난타'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막을 열었다. 관내 수많은 내 · 외빈이 참석해 지나온 성과에 대한 축하인사와 감사를 전하는 자리로 진행되었다.

김승옥 센터장은 인사말에서 "아이들이 세계적인 리더로 자라나도록 먼저 안심한 양육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이를 돕기 위해 원장과 교사에게 행복한 근무환경이 되도록 센터는 한 알의 밀알 정신으로 돕고 섬기며 헌신하는 자세를 견지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행사장에는 교재교구 전시회와 건강 힐링 콘서트 및 가족뮤지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관을 빛내 주었다. **[총괄팀장 권정아]**

상계5동어린이집

▲ 민속의 날 행사에 참여한 유아들이 가야금 연주를 감상 중이다.

보나 민속의 날

지난 20 일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일일교사 체험, 보나 민속의 날 열린어린이집 행사를 가졌다.

민속의 날 행사는 조 · 학부모 20 명이 참석해 일일교사로 나섰으며 직접 진행하는 코너 형태로 이어졌다. 프로그램은 명절놀이를 살펴보는 민속놀이 체험과 송편 빚기가 있었고 북을 만들어보는 북 만들기도 관심을 끌었다. 전통악기 공연코너에서는 가야금과 장구를 할머니가 연주해 줘 특별한 감동을 전했다. 이밖에 전래동화인 팥죽 할머니와 호랑이를 동화구연과 연계시킨 인형극으로 만들어 관람할 수 있었다.

참여한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생활을 엿 볼 수 있는 기회였고 명절에 이뤄져서 뜻 깊었다"며 만족감을 표현하였다. **[초록풀잎반 교사 홍옥주]**

늘사랑어린이집

▲ 할머니와 유아들이 함께 제기차기 등 민속놀이를 즐기고 있다.

1, 2, 3세대가 함께한 전통놀이

지난 20 일 추석행사로 '1, 2, 3 세대가 함께하는 전통놀이'를 진행하였다. 학무모가 일일교사로 참여해 노인정 어르신과 영유아들이 전통놀이를 함께 가졌다. 놀이는 제기차기, 떡매치기를 비롯해 딱지치기와 투호놀이 등의 7 가지 영역이 진행되었다. 영유아들은 각반을 다니며 전통놀이를 체험했는데 특히 떡메치기와 제기차기 경험 과정에서 웃음꽃이 만발하였다.

1, 2, 3 세대가 함께 추석과 어울리는 전통놀이로 가족과 정을 나누고 교감하는 시간이 됐다. 일일교사로 참석한 학부모들은 "어르신과 어울려 좋았고 아이들의 즐거워하는 모습까지 보니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가 쌓여 감사했다. 다양한 체험을 제공해 준 교사들의 노고를 알 수 있었다"며 소감을 전하였다. **[김미화 교사]**

충무어린이집

▲ 유아들이 경로당을 찾아 어르신 공경의 마음을 배우고 있다.

어르신 공경

지난 21 일 충무어린이집 하늘반 친구들은 어르신들이 계시는 주변의 경로당을 다녀왔다. 가족형태가 핵가족화 되어 가는 이 시대에 할머니, 할아버지께 재롱을 부리고 웃음꽃을 드리기 위해서였다.

처음 경로당에 들어설 때는 긴장하고 낯선 기색이 역력했지만 곧바로 환한 미소로 노래를 들려 드렸다. 할머니 할아버지의 따사로운 미소와 추임새에 어린이들의 긴장감도 눈 녹듯 사라지고 꾀꼬리 같은 소리로 노래를 불러 드렸다. 노래에 이어 할머니 할아버지께 작은 손으로 시원한 안마까지 해드리자 무척 좋아하셨다. 어르신들도 고맙고 감사하다며 행복한 미소를 보내주었다. 유아들은 "할머니, 할아버지 건강하세요."라고 인사드린 후 안아드렸고 이에 감동하는 모습에서 어른공경의 마음을 함께 가졌다. **[김지현 교사]**

www.bible.ac.kr

「성서대학돕기운동」 기부현황

KBU와 함께 꿈꾸는 복음의 내일, 성서대학돕기 운동이 복음을 심습니다!

- **기부기간** 2018년 8월 21일부터 2018년 9월 20일까지 신규약정 및 기부해 주신 분들의 명단입니다.
- **국내기부** 국민은행 835-01-0178-931 예금주 한국성서대학교 / 하나은행 123-910004-14705 한국복음주의학원
- **국외기부** PayPal : kbiblefunds@gmail.com / Mail Check : Payable to Korean Bible Funds _ 646 Eliska Ct. Walnut Creek, CA 94598
  Wire Transfer : Wells Fargo Bank _ Korean bible Funds _ Account No. : 384 048 3592 _ Routing No. : 121 000 248
- **접 수 처** 01757 서울 노원구 동일로214길 32 _ 한국성서대학교 대외협력실(복음관3층) _ Tel. 02.950.5517 Fax. 070.4275.0161
- **기부금종류**
  장학기부금 : 학업곤란 및 생계곤란 학생들을 대상으로 긴급으로 지원되는 생활 장학 기금
  운영기부금 : 학교 발전을 위해 시급한 분야에 우선적으로 쓰여지는 기금
  역명기부금 : 중계역(한국성서대역) 3년간(최장 6년) 계약되어 있는 금액 납부를 위한 기금
  건축기부금 : 신축 및 학생들이 편하게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최적의 면학 환경을 조성하는 기금
  발전기부금 : 각 학과별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우수한 인재로 성장해 나가기 위한 기금

100만원 이상 기부자 명단

성서대학교회(최정권 목사)	6,270만원(운영)
제니코스 주식회사(문기광 대표)	2,034만원(현물)
(재)농촌청소년미래재단(류태영 박사)	375만원(장학)
열방교회(김국명 목사)	322만원(장학)
티디에프코리아(주)(신영태 대표)	300만원(현물)
신광교회(광명)	150만원(장학)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150만원(장학)
박선(이사)	120만원(운영)
한국장학재단	120만원(장학)
대광교회(서해원 목사)	110만원(운영&장학)
강우정.강진(총장)	100만원(운영)
김호식.강은정(6회 동문)	100만원(운영)
이례장학(민용기 원장)	100만원(장학)

약정자 명단

동문 및 가족	교직원 및 가족	단체 및 기관
3구좌 이재국	20구좌 박태수	5구좌 일동성서교회

기부자 명단

동문 및 가족

5천원 김시내 이아람 정다운 무 명

1만원 강나경 강명희 강상미 강순성 강신용 강영규 강영주 강은아 강재현 강정민 강정애 강주옥 강춘자 강현미 고성호 고재민 고정균 곽미화 구본길 구세경 구진경 권명순 권슬기 권예은 권유철 권정인 권 준 권희조 금동옥 김가영 김경수 김경수 김경혜 김나래 김다솔 김도훈 김동현 김명희 김무엘 김미숙 김민겸 김민정 김민정 김민호 김믿음 김병렬 김보민 김보희 김선식 김선태 김성균 김성애 김세현 김순화 김승훈 김유미 김유진 김은경 김은석 김은주 김은천 김은혜 김은희 김응환 김일준 김재현 김정례 김정모 김종환 김지선 김진영 김진하 김춘덕 김태용 김필녀 김하은 김한나 김현정 김현진 김혜선 김혜영 김화태 김효래 나선영 나혜수 남경숙 남범수 남상숙 남성휘 노명민 노 철 노한나 류수진 류요한 류 정 류희정 마효정 문기철 문성령 문영주 문홍철 민정은 박경옥 박명우 박문홍 박상수 박수진 박순임 박아론 박영근 박영자 박윤복 박은선 박은지 박재신 박재윤 박종주 박주옥 박지영 박진기 박창대 박창민 박철교 박향식 박형택 박혜인 반해빈 반해성 배은휘 배창경 배효순 백명희 백연주 백은진 백향목 변지윤 서미희 서유미 서정민 서지혜 서초롱 서희영 성은숙 손명배 손영화 손윤숙 손진규 손혜진 손화진 송명훈 송민규 송순덕 송영자 송유지 송향숙 신경자 신대민 신미선 신은혜 신종수 신태양 신혜영 신호영 신화영 심두한 심순자 심인자 심희남 안현정 양은숙 엄보라 엄보영 여지은 오병휘 오세천 오은희 오인록 오찬미 오채엽 우승연 원윤희 유미정 유소담 유양숙 유영진 유정례 유주홍 유지영 유지혜 윤영원 윤예서 윤은영 윤정숙 윤지준 윤혜자 이경선 이경희 이광석 이근중 이누리 이도훈 이두현 이만수 이명호 이미정 이민화 이병주 이병현 이상용 이상준 이상진 이상필 이석호 이수경 이수정 이수진 이수현 이신재 이아름 이영광 이영식 이윤성 이윤주 이은실 이은실 이은영 이은지 이정숙 이정익 이정훈 이주희 이진경 이진리 이창호 이채녀 이철승 이춘석 이학준 이현무 이현섭 이현지 이혜윤 이화연 이희윤 인지혜 임남연 임삼일 임은성 임은진 임찬웅 임창열 장두성 장석찬 장세진 장순호 장윤국 장익봉 전명자 전미영 전병준 전상호 전소영 전아름 전아영 전예지 전한나 정금숙 정선도 정성헌 정성희 정연오 정영교 정영용 정옥순 정은영 정인철 정지용 정지현 정진영 정혜문

기부자 명단

	정희영 조경애 조믿음 조소연
	조승희 조영희 조용희 조은경
	조은별 조은화 조인순 조태환
	주민자 주성현 주영덕 지영환
	진병원 차현정 채유신 채종원
	최민영 최서희 최선경 최승주
	최승진 최아란 최예슬 최정화
	최종운 최진희 최혜림 탁국현
	탁명화 하수현 하 진 하진우
	한경순 한상장 한아름 한영신
	한원창 허영숙 허정운 홍금주
	홍선호 홍성대 홍애진 홍자영
	홍정심 홍진기 황선명 황형록
	강해든이 설에스더 신에스더
1만5천원	이예람
2만원	곽연희 구연민 국소영 권오경
	김경희 김기옥 김명희 김미나
	김미숙 김미향 김샛별 김성훈
	김순녀 김승용 김연정 김연주
	김영주 김영태 김용길 김원미
	김은하 김일한 김재원 김정훈
	김중재 김지원 김지은 김지혜
	김태분 류충열 마혜진 박대우
	박성준 박재송 백연옥 성낙표
	성용제 소경숙 손성원 손주현
	송만호 송영희 송인성 송정화
	신예희 신정섭 신정화 오상석
	오정순 오찬양 왕용분 유순희
	윤광길 이경희 이구영 이상복
	이선영 이선재 이영애 이용원
	이유미 이유진 이은애 이의선
	이정목 이종임 이충희 임은희
	장민호 장재원 장정인 전영희
	전택복 정주영 조성진 진태임
	최규봉 최선옥 최수지 최윤석
	최인경 최호정 하지혜 홍진옥
	황보혜영
3만원	고하은 공복순 권삼희 권서영
	권오규 권정완 김가희 김다예
	김동교 김동원 김민지 김보라
	김보람 김세련 김아란 김지애
	나예원 남세영 남지원 문순일
	문지수 문진아 민승철 박기혁
	박문용 박민송 반세호 방애자
	서명주 서성숙 설보경 송성은
	신은숙 양광석 양연선 양혜경
	양혜영 오수진 유예진 이경석
	이남희 이다윤 이성은 이안나
	이예은 이예지 이은혜 이재국
	이주연 이혜민 임소담 임유미
	장영훈 전병민 전영이 전지혜
	정선희 정슬기 정윤주 정재연
	조신애 주혜원 최광희 최소린
	태지선 한보미 홍석화 홍예지
	황미란 황영숙 황예린
4만원	박주은 배정환 신은진 이윤정
5만원	강동란 경민정 김세영 김연수
	김종남 김진경 남희경 박광필
	배성준 송복순 송우주 양원석
	이계훈 이길순 이부호 이지은
	임연식 전은진 조유진 천유림
	하승훈 허성희 홍현숙
6만원	윤가영 정동주
10만원	강경옥 김장교 김종우 김진만
	서광진 서수경 송현미 신치선
	장명헌 정무웅 최대만
11만원	유선미
50만원	신호정
100만원	김호식.강은정 이례장학

재학생 및 가족

5천원	김채현 복영광 이재은 장혜란
1만원	강애솔 강정희 구혜경 권문기
	권순길 김명선 김민아 김석정
	김성자 김윤옥 김은이 김창현
	문성남 박기영 박대종 박민희
	박재숙 방지연 백해송 서이현
	성순애 송기운 신연정 신연정
	신영옥 염인형 오미선 윤운섭
	윤효심 이금란 이동기 이성은
	이용철 이원혁 이혜진 임동화
	전도해 정창금 최상모 최인호
	홍경희
2만원	공진희 김복녀 김현숙 박혜숙
	서성식 안혜경 엄미자 오옥경
	이영림 최혜진 허 윤 홍은선
3만원	김윤정 김은선 김재임 박세은
	박재완 배정숙 서재형 이종권
	조대의 채형찬
3만5천원	강하늘 신나은
5만원	오유경 이지은 이한빈 허용철
6만원	왕 석
10만원	김형태 박연자 이상학

교직원 및 가족

1만원	강민경 강승현 강신애 고성산
	고아라 구동식 구만길 권관희
	김미영 김병수 김봉재 김상일
	김선준 김 성 김세미 김세진
	김영광 김영찬 김은실 김춘하
	김형중 김혜성 김 희 류은미
	문지예 민경은 박남일 박덕자
	박묘서 박주양 서광철 안수자
	양승원 윤명섭 이경희 이기훈
	이문자 이승영 이종우 이지희
	이호섭 장경순 장원경 전광선
	전귀선 전영호 정보미 조아라
	조영채 조형섭 최난영 최민주
	최은비 최혁인 하희수 허윤민
	요시다고조
2만원	고진주 권경애 김남준 김동준
	김인화 김장호 문행자 박성범
	박예진 박이삭 박일립 박준기
	박태용 손정수 안 호 오철송
	유성현 이상일 임현필 장길정
	장영자 장지순 정영은 진달래
	최지연 최형찬 한상만 한정숙
3만원	김순의 김은영 박민수 박재진
	방진희 신재윤 염계향 유다운
	유수연 이소연 임경미 정순애
	추연진 한요게벳
4만원	김덕원 김세원
5만원	권순범 김덕현 김성호 김현동
	박현희 신금주 신지수 안미란
	유미나 이은광 장정순 전영천
	최사랑
6만원	양희정 이성아 임환석
7만원	이광삼
7만9천원	정은상
9만원	권경만 장성희
10만원	강규성 강정원 고미숙 곽규상
	김경숙 김도경 김미정 김승호
	김웅기 김은호 김정원 김정원
	김태규 김현광 김현욱 김형미
	안현미 오윤선 원영희 유정선
	이소정 장인순 정순례 정휘진
	조현진 조혜경 진경선 최육열
	최은희 한영수 현우석
11만원	김중완 이복남 최지은
12만원	박태수 이강동
13만원	김정숙 한진호
15만원	김량헌 김희수 최영태
20만원	김성경 김창원 안정선 임지영
	정해덕 조윤경
30만원	최선희
70만원	오은주
100만원	강우정.강진
120만원	박 선

부설기관

1만원	권은지 김령오 김옥준 김은지
	김태연 문유나 박제하 서애진
	오윤아 윤보배 임재택 차도영
	최미정 최선영 허성보
2만원	김은비 전안나 홍옥주
3만원	권정아 권효진 김미화 김선화
	김은솔 김주은 김현애 김혜진
	박미애 박선경 박진희 박천순
	변윤영 서혜란 송애솔 양미현
	위소진 유정현 이다솜 이선정
	임미숙 임보나 임지혜 장나혜
	장수진 장지영 정난경 정혜란
	조은채 최은혜 최하나 탁지혜
	한민희
4만원	박미선
5만원	강진아 박연희 서영숙 여미희
	이지연 전은재
6만원	변송이
10만원	이인경 정나나 조지선 지주나
15만원	김신덕 김화영 안미희 오동준
	차 건
20만원	김승옥
25만원	신영자

권선제일교회

1만원	이상규 조예림
5만원	권선제일교회

동광교회

1만원	김복례 김영란 배 윤.김현진
	한미희
3만원	이은지

밀알교회

1만원	서효정

비전교회

1만원	이광열 이반석 장옥경
2만원	장선규
3만원	이훈호 장석원

삼일성서교회

1만원	오성군 정혜란 진재호 한금순
2만원	김초롱
10만원	삼일성서교회

서문교회

1만원	강선애 박경자 윤인호 임용주
1만5천원	정찬수
20만원	서문교회

석계제일교회

1만원	이재순 채용문
2만원	오활란

성서대학교회

5천원	김경래 김판근 김화영 최진두
1만원	강경혜 고미숙 김나미 김다혜
	김덕현 김동준 김민선 김배열
	김성철 김윤선 김을열 김인자
	김주혜 김지우 김지윤 김태연
	김택근 김혜정 김희자 남윤주
	류 강 무 명 박명자 박영한
	박용숙 박인숙 박천순 박태수
	성윤선 손진희 송형기 신양금
	심애경 양순정 오경모 오경원
	오윤아 용정자 유상호 이가은
	이길우 이대영 이대우 이대한
	이봉호 이선호 이영희 이임자
	이정숙 이정철 이종옥 이주현
	이지선 이지수 이진호 임숙정
	임현필 장근문 장홍림 전하준
	전해성 정갑순 정나영 조건희
	조영희 조용수 조준희 조현진
	지주연 최미숙 최영태 하명란
	황서린
1만5천원	김혜진 안숙진
2만원	강규성 권정숙 권정화 김문응
	김미숙 김봉춘 김순자 김은미
	김인영 김향순 박선하 박온유
	변경선 서인옥 안영숙 양천식
	오경이 이상록 이승림 임성일
	장병호 장인순 전영희 정명수
	정선희 조병하 조성민 조정선
	최순남 홍기순
2만5천원	권경만
3만원	김영헌 김영희 김원태 서 욱
	양태환 이은실 한진호
4만원	오경모 윤복순
5만원	길용희 김일선 박세건 유형창
	전명진 조혜경 최정권
5만5천원	김웅기
6만원	이소정
7만원	강유진
8만원	권태완
22만원	차선아
6,310만원	성서대학교회

수원교회

1만원	강동형 기병문 김미영 김상오
	김일섭 홍성호
2만원	이승종

이례교회

1만원	손미희 이채은

장자교회

2만원	권정숙
5만원	장자교회

기부자 명단

주향교회
1만원 유병우
2만원 정우진
3만원 주향교회

중앙성서교회
1만원 곽 해 김세현 김재혁 김정희 우용식 이승학 최경자 최영란 최영숙
2만원 김옥자 신영옥 오근수 이수병 이준구.안춘자
3만원 김덕규
중앙성서교회 원로 · 은퇴장로회
5만원 김종구 한금례
중앙성서교회 권사회
중앙성서교회 바울선교회
10만원 김윤규.신인자 무 명 이혜선 현희철
12만원 황인돈.김순자
48만원 중앙성서교회 구제위원회

퇴계원제일교회
1만원 유숙자 유재란 차형미
10만원 퇴계원제일교회

평원교회
1만원 성경아

평화교회
1만원 김광석 정순이

풍암교회
1만원 유금례 윤은정

함평대동교회
1만원 김희경

효성교회
1만원 오혜숙 원 구 진경숙 진은숙 진효숙 한옥경 홍성일
2만원 김양례 유순남
3만원 문경녀

일 반
1만원 구필례 권숙영 권영옥 권창석 김균태 김기수 김대성 김동우 김명호 김미라 김배숙 김범설 김범준 김석균 김승애 김양권 김영주 김유벽 김유진 김은경 김인호 김진영 김천수 김효정 류계현 류찬성 박미숙 박영미 박영해 박영희 박지성 박해숙 소아름 송수용 오경희 오미라 오현숙 원영훈 유제범 유해연 유화실 윤주원 윤주하 이경태 이관헌 이성희 이우윤 이원주 이현수 이혜숙 이호정 장명웅 장지화 정지수 조동빈 조목장 조언상 조여원 조은해 조준성 조준우 진윤승 최경숙 최범식 최원실 최은실 최인숙 최점숙 하경국 한민희 한상은 허창금 황영수 위샐러듀
2만원 김윤숙 김종환 서병준 이일신 이찬영 장병길 정주아 정형채 최국열 최지연 허정안 홍춘호 김에스더
3만원 김미수 장문석 장순옥
4만3천원 박은영
5만원 강한성 석지현 이미경 이천화 주은자 차인숙
10만원 류동원 박경혜
20만원 김순자
30만원 박순정

단체 및 기관
1만원 (주)대우노즐/(주)삼현미디어/김포예수사랑교회/동두천성실교회/맘키즈푸드/이음기업/행복한교회
2만원 (주)삼삼전기관리공사/(주)엘리트코리아/금곡광염교회/동신자원/문양교회/성복중앙교회/열방교회/예수꿈사랑교회/월계성서교회
3만원 강남임마누엘교회/다드림교회/새샘교회/섬기는교회/신작교회/우리교회/의정부좋은나무교회/태광성서교회/푸른동산교회
4만원 주님의교회
5만원 삼일교회/수색감리교회/충은교회/하늘누림교회/행전교회/향기나무
10만원 (주)아이앤유니/(주)이레E&C 이레디자인/가성교회/구리중앙교회/두암산업(주)/상록교회/상일교회/새중앙교회/생명샘교회(성주)/오감발달연구소
11만5천원 도서관
14만2천500원 우리회
20만원 (주)소원기건/도봉성산교회/철원제일교회
30만원 노아인터내셔날/염창중앙교회/한민제일교회
40만원 구리성광교회/서부중앙교회
110만원 대광교회
120만원 한국장학재단
150만원 신광교회(광명)/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300만원 티디에프코리아(주)
322만5천원 열방교회
375만원 재)농촌청소년미래재단
2034만원 제니코스 주식회사

소계 (2018.08.21~2018.09.20)
136,537,171
누계 (2018.03.01~2018.09.20)
506,924,342

대외협력실 **02-950-5517**